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장정원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사우스 다코타
파견대학	노던주립대학	파견기간	12.08-13.05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노던 주립대학은 사우스다코타의 에버딘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조용한 학교입니다. 학교가 크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학생이나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에게 친절했습니다.</p>
2012-2학기 수업	<p>드로잉 1 (나디아 교수님) 초기에 재료 값으로 10만원 가량 썼었지만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재미있게 수강했던 과목입니다. 수업내용도 기초적이라 따라가기 쉬웠고 교수님께서도 점수를 잘 주시는 편이었습니다. 차콜이나 연필로 데생하는 그림위주로 배웠습니다.</p> <p>마케팅 (한나 교수님) 약 세번에서 네번의 시험이 있고, 틈틈히 레포트 과제도 많이 내주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수업도 지루한 편이였고...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랑 맞았던 교수님이셨고, 한국학생들도 많이 듣는 수업이라 수업내용을 공유할 수 도 있었다는 면에서 괜찮았던 수업입니다.</p> <p>사회학(Jim seeber 교수님) 교재와 내용이 재밌어 보여서 택했던 수업이지만 수업자체는 정말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수업내용도 책 위주가 아니라 본인이 준비해오신 자료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험대비가 굉장히 힘들었고 과제도 수행하기에 벅했습니다.</p>

	<p>책은 수업초기에 무슨 책이 필요한지 일찍일찍 파악해서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헌책 빌려 쓰시거나 사서 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학교 서점에서 빌려서 같이 수업 듣는 학생과 나눠서 보셔도 좋구요.(근데 정말 조심하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벌금 100\$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아마존을 추천합니다...)</p>
<p>2013-1학기 수업</p>	<p>드로잉 2 (나디아 교수님) 드로잉 1에 이어서 들었던 수업입니다. 색을 입히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드는 등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다른 중국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수업입니다.</p> <p>디자인 1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아침수업인데다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로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었는데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 틈에서 취미로 들었던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도 깐깐한 편이셨고... 듣고 후회했던 수업입니다.</p> <p>광고학 (한나교수님) 마케팅 수업에 이어서 같은 교수님 수업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았지만 너무 지루했고 과제가 많아서 힘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고학년이 많이 듣는 수업이라는 점에서도 수업이 몇몇 학생들과 토론식으로만 이루어져서 조금 따라가기 힘들었던 점도 있었습니다.</p> <p>바이올린(버드노이 교수님) 바이올린을 한학기동안 맘대로 대여해서 쓸 수 있었고, 기초부터 과외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유익했던 수업입니다. 출석체크는 하지 않고 마지막에 작은 콘서트를 기말고사로 대체해 점수를 주었습니다.</p> <p>지역보건학 전공이랑 비슷해서 들었던 수업인데, 고학년이 많았고 저 혼자 아시아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힘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발표 수업이 세 번이나 있어서 정말 ..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잘 이행했고 시험도 잘 치워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교환학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다 보니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 분들도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고 친절하셨습니다.(스테이시, 에린) 학기마다 두 번 정도의 교환학생 전체를 위한 여행이 있었습니다. 걸쳐 페스티벌이나 교환학생 행사도 자주 있어서 여러가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4월 말까지 눈이 왔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이 굉장히 춥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주 두꺼운 점퍼를 중고샵에서 사 입고 다른사람한테 주고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옷 있으면 한 두 벌 정도 압축해서 꼭 들고가세요~~!</p>
안전	<p>아주 양호합니다. 지내는 동안 어떠한 위험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만족했던 부분입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p> <p>노던은 교환학생에게 학교기숙사가 의무입니다. 보통 학교 기숙사_ 저디와 맥웰시라는 기숙사에서 교환학생들은 많이 삽니다. 물론 다른 기숙사를 선택해서 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디는 굉장히 시끄럽고 운동하는 남학생들이 많은 기숙사입니다. 또한 한층을 남녀가 나눠쓰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웰시는 제가 두 학기 동안 머물렀던 기숙사입니다. 1층과 3층은 남자가 2층과 4층은 여자가 사용합니다. 공용 라운지, 공용 화장실, 욕실등이 있었고 빨래방도 있었습니다.(저디도 있음.)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는 술을 가지고 있어도 안되고 마셔도 안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세 번 이상 걸리면 퇴사지만 한국학생들은 몰래 많이마시고 또 몇번 걸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퇴사 당한 경우는 못 봤지만 유의해야 합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거의 학교식당만 이용했습니다.</p> <p>노던은 밀플랜이 교환학생들에게 의무기 때문에 학식 100끼에 플렉스 머니 400달러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플렉스 머니는 저디 기숙사에 있는 편의점이나 학교 내에 있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요리를 거의 해먹지 않아서 항상 밀플랜을 먹었습니다. 질렸지만 딱히 먹을 방법이 없어서 계속 먹었고, 뷔페식이기 때문에 골라먹을 수 있는 점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먹고 싶지는 않네요...</p>
	<p>대중교통은 없습니다. 차를 렌트하거나 학교에서 빌려주는 대형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에버딘 공항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차로 미네아폴리스 공항으로 이동해 다른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p>
교통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비용) 두 학기 학비+비행기 샀; 약 1300 만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비행기 티켓 약 240만원	
Fees	(두 번째 학기 때 냈던 학비 기준) 밀플랜; 1,267\$ 기숙사(맥웰시): 1,351\$ 수업료; 1,629\$ 보험료; 417\$ Transcript fee: 5\$ (원지 모르겠어요) 총 ; 약 4,671\$	노던은 수업마다 내야하는 수업료가 있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학기당 약 150만원 정도 듭니다.
보험료	보험료; 417\$	한국에서 보험을 들었더라도 학교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 이 보험덕분에 병원에서 아플 때 진찰을 무료로 해줍니다.
숙소	기숙사(맥웰시): 1,351\$	저디랑 맥웰시가 제일 싸고 나머지 기숙사는 조금씩 더 비쌉니다. 이인실을 혼자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추가 비용이 듭니다.
식비	밀플랜; 1,267\$	학식에서 쓸 수 있는 돈과 학교 카페에서 쓸 수 있는 돈(플렉스 머니)이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학식에서 쓸 돈과 플렉스로 쓸 돈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내는 돈은 같습니다.)
교통비	왕복 50\$	여행갈 때 미네아 폴리스까지 학교에서 대절해 주는 버스비를 낼 때
책값	새 책 한 권당 약 100\$	어떤 책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아주 비쌉니다. 아마존에서 중고사세요
기타1	겨울방학 동부여행 약 200만원	비행기 값, 숙박, 식비 등등 모두 포함해서 약 3-4주간 쓴 돈입니다. 대부분 가장 싼값으로 선택했고, 쇼핑도 하지 않았을 때 들었던 비용입니다.
기타2	약 3박 4일간의 여행; 약 25만원-50만원	쇼핑하지 않고 차 빌리고 숙박비나 식비 하면 못해도 25만원은 썼던 것 같습니다.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가시는 분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웬만하면 가서 다 사려고 거의 짐을 안 챙겨왔는데 그게 제일 후회했습니다. 사는데도 한계가 있더군요. 즐겨 입는 옷이나 자주 쓰는 물건들 챙겨가세요. 한국음식은 당장 가서 몇 일 먹을 것 정도만 챙겨가세요. 라면이나 김치 이런 거 마트에 다 팔고 H몰이라고 한인인터넷 쇼핑몰 이런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짐 들고 가는건, 대부분 비행기표가 아시아나 같은 한국비행기 탔다가 외국비행기로 갈아타실꺼예요.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는 캐리어 두개까지 공자로 보내주지만 외국 항공사는 캐리어 하나랑 작은 짐 한 두개 까지 해서 최대 세개 가지고 탈 수 있어서 캐리어 두개 싸시면 하나는 꼭 돈 주고 붙여야돼요. (약 7만원정도) 개인 조금한 가방, 노트북 가방, 중간크기 캐리어(기내용 아니더라도 너무 크지만 얇으면 대부분 갖고 타게 해줍니다.) 그리고 짐칸에 붙일 짐 이렇게 싸서 가심될 것 같아요. 짐칸에 붙일 짐은 돈내고 붙이는 짐이니깐 많이 싸세요. 액체 같은 것도 이 가방에 다 몰아 넣구요. 캐리어는 각각 24Kg 안 넘게요. 비상약 같은 것도 거기 월마트 같은데 가면 약효 좋은거 많이 팔아요. 별로 안 챙겨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선 아프면 정말 돈 엄청 깨지니까 꼭 가기 전에 치과치료나 병원검진 받고 가시는게 좋아요.

거기서 어떻게 부모님이 붙여주시는 돈 쓸건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거예요. 여기서 시티은행 국제 체크카드 만들어 가셔서 그거 그냥 쓰세요. 저는 엄마가 이 카드로 돈 보내주시면 뽑아서 거기서 만든 웰스파고라는 은행계좌로 다시 넣어서 썼었는데 알고보니 그렇게 안해도 됐더라구요. 왜냐면 시티 체크카드 그냥 긁어도 수수료 별로 안나오더라구요.(진짜 별로 안나와요) 어차피 시티카드에서 현금인출해서 웰스파고 카드로 옮기는데도 현금인출 수수료 건당 3불씩 들어서... 저처럼 안 하셔도 별 손해 안보실 것 같아요. 그냥 시티 체크카드 들고가셔서 쓰세요. 거기서 현지 은행 카드 만드실꺼면 us뱅크꺼 만드세요. 웰스파고는 매달 인건비라고 하면서 만원씩 빼가요.

휴대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시죠.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는 여기서 스마트폰 정지해가서 거기 통신사에 새로 개통해서 요금제 내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15불부터 70불까지 여러가지 요금제가 있으니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야는 사람이 썼었는데 25불이 무제한? 같은 거라서 가격대비 제일 적당하다고 하더라구요.)

두번째는 거기 월마트 같은데서 프리페이드 폰(약 30불정도) 이라고 파는데 그걸 사서 역시 통신사에서 개통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15불부터 45불 정도 까지 요금제가 있고요. 정지해서 가져간 스마트폰은 와이파이존에서 카톡같은거 할 때만 썼구요. (학교전체가 모두 와이파이 제공됩니다.) 저는 프리페이드폰을 썼었는데 첫번째 경우를 더 추천할게요. 휴대폰 두개 쓰는 것도 불편했고 돈 아끼려고 했던 건데 더 저렴한 방법도 아니었던 것 같네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미국에 가서 진짜 살면서 문화를 체험하고 실제로 쓰는 회화 같은 것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교환학생이라는 경험이 저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도 너무 뿌듯하구요. 보는 시각도 더 넓어지고 다양한 친구들도 사귀고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실 노턴은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많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어공부하기에 탁월한 장소라고 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 많은 만큼 교환학생끼리 뭉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교환학생 파워도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하지요. 다 본인 하기 나쁘고 본인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생각하시고 항상 활동적으로 생활한다면 즐거운 일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사우스 다코다 주에있는 러쉬모어 조각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학교에서 교환학생 전부 다 함께 갈던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떠났던 여행!! 아홉시간을 차타고 달려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갔었습니다! 자연경관이 너무너무 멋있었던 잊지 못할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었습니다.



호스트패밀리와 함께했던 시간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모두 함께 아이스하키를 보러 갔던 날입니다.



겨울 뉴욕 여행 중에 타임스퀘어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봤던 뮤지컬, 활기 넘쳤던 뉴욕의 거리들.. 다 너무 멋진 기억이 되었습니다^^



할로윈 때 교환학생을 위한 행사가 열렸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보냈던 즐거운 밤!!



학교 풋볼 팀 경기를 보러 갔던 날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원정경기를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졌습니다.



두 학기 동안 룸메이트였던 케이시와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보냈던 시간들을 일기형식으로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gwon479>